

제 3장 험펠 The Function of General Laws in History 행정대학원 2003- 22870 김정신

1. 과학적 설명의 논리(E, C, C1, C2 등은 사건의 종류나 속성을 나타냄) 1) 집단 1: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사건 C1, ..., C2가 발생한다는 일련의 진술들, 곧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한계 조건, 결정 조건들임. 2) 집단 2: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반 법칙들. 곧 집단 1에서 묘사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마다, 설명될 사건 E가 발생할 뜻. 곧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일련의 보편적 가설들임 (1) 집단 1, 2의 진술들을 경험적 근거가 합리적으로 잘 확증한다, (2) 집단 1, 2로부터 사건 E가 발생한다는 진술을 논리적으로 연역해낸다.

DN 보편

예) 설명될 사건 E: 추운 밤 동안 차의 냉각 장치 터짐. 집단 1: ① 그 차는 지난 밤 내내 거리에 남겨져 있었음. ② 냉각 장치는 쇠로 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음. ③ 냉각 장치 안이 완전히 물로 차 있었음. ④ 뚜껑은 나사로 꼭 조여 있었음. ⑤ 기온은 화씨 39도에서 25도까지 떨어짐 ⑥ 기압은 평소와 같음 등. 집단 2: ① 기압이 평소와 다른없는 상황에서, 기온이 화씨 32도 아래이면, 물이 언다. ② 부피가 변함없거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온이 화씨 39.2도 아래이면,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물의 압력은 증가한다. ③ 그리고 물이 얼 때, 그 압력은 다시금 증가한다. ④ 온도와 부피의 함수로 바뀌는 물의 압력을 예측하는 계량적 법칙 등.

인간성
↑
DN 보편

2. 1) 전술한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일반 법칙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일련의 사건들은 설명될 사건 E를 발생시킨다 할 수 있음. 2) 위 1에서 언급한 종류의 경험 법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져왔음. 3) 보편적 경험 가설을 설명 원칙으로 사용하면 진정한 설명과 거짓 설명을 구분할 수 있음. 거짓 설명 (1)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내적 생명력 사용 유기체 형태 설명 (2) 역사의 사명, 예정된 운명에 의한 것이라 말함. => 시각적,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은유. (3) 검증 가능한 진술들로부터 연역하지 않으므로 설명 × 4) 설명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검증을 받음. (1) 결정 조건을 진술하는 문장들을 경험적으로 검증. (2) 보편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 (3) 설명될 사건을 묘사하는 문장이 집단 1과 2에 대한 진술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이 논리적으로 완결적인지 탐구.

3. 과학적 예측에서 일반 법칙의 기능: 경험 과학의 예측은 (1) 과거나 현재에 알려진 구체적인 조건들을 묘사하는 진술과 (2) 이에 들어맞는 일반 법칙들로부터 미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 이끌어냄. ∴ 과학적 설명의 논리와 꼭 같음. 실용적인 이유들로 양자를 구별할 뿐.

예) (1) 과거나 현재의 순간에서 행성들의 위치와 운동량 (2) 천체의 역학 법칙들로부터 미래의 어느 날, 태양에 대한 행성들의 상대적 위치들을 예측.

4. 1) 역사학자와 사회학자 또한 암묵적으로 일반 법칙에 의거하여 설명함.

예) 정부 기관의 영속화 및 확장 경향에 대한 설명: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음, 기술에 적응하고 나면 변화를 바라지 않음, 권력을 일단 잡으면 놓으려 하지 않음 => 가능한 한 권력과 위신의 정도를 높이길 바람.

2) 이들이 스스로 전제하는 일반적 규칙성들에 대해 뚜렷이 진술하지 못하는 까닭 (1) 여기서 보편 가설들은 흔히 개인이나 사회의 심리에 대한 것임.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일상 경험으로 친숙. 이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암묵적으로만 가정. (2) 밑에 깔린 가정들을 공식화할 수 있으려면, 이들을 매우 자세히 기술할 수 있어야 + 모든 경험적 증거들이 그런 가정들을 지지하여야 함.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예) 만일 점증하는 불만으로 어떤 혁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런 설명이 어떤 일반 규칙성을 가정한 것은 확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만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어떤 형태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지를 진술하기는 힘들.

3) 초기 조건과 보편 가설들을 일반적으로 뚜렷이 밝힐 수는 없음. 그러므로 역사학은 설명 스케치. 초기 조건과 법칙을 다소 막연하게 기술. 이것이 과학적 설명으로 발전하기 위해 막연한 것을 구체화하여 “여백을 메워야 함” 4)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 스케치 vs 거짓 설명. 전자에는 좀더 구체적인 진술들이 필요. 이들은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에 의해 확증되거나 기각될 수 있음. 5) 설명이 건실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1) 연구자는 먼저 설명 밑에 깔린 가정 및 가설을 구체화해야. (2) 이제 가설들의 범위와 가설들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지 평가.

5. 1) 전통적 역사학: 공감하는 이해의 방법. (1) 역사학자는 역사의 주인공 입장이 됨. (2) 역사의 주인공이 행동하는 환경과 그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완벽히 깨달으려 함. (3) 이렇게 상상력에 의거하여 영웅들을 자기 동일화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설명에 이룸. 2)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가설의 발견에 도움을 주는 장치일 뿐. 이 방법을 통해 역사적 주인공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가설들을 얻게 됨. 그런데 설명이 타당한지 여부는 가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데에 있지 않고, 제시된 가설들이 경험적으로 올바른지에 달려 있음. 3) 공감하는 이해의 방법이 없는 역사학도 가능.

예) 편집증 걸린 역사의 주인공. 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더라도, 이상 심리학의 원칙들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행동 설명할 수 있음.